



이름:

WEEK 22

May 26

사무엘상 13장

13-14장은 사울왕 즉위 2년에 발생한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7일 안에 와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약속(10:8)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오자,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린 이유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 2)
- 3)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이 쳐들어 올 위기)

*눈에 보이는 위기에 처한 사울이 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7일을 온전히 기다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4장

본장은 블레셋을 대하는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다고 느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6). 반면 사울은 블레셋을 자기의 나라와 왕권을 위협하는 '내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24절) 요나단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으나, 사울은 자신의 전쟁이라 생각하고 평생 자신을 위해 사람을 모았습니다. 47-48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쟁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모았나요?(52절)

May 27

사무엘상 15장

본장 1-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 하라고 말합니다.(참고: 출애굽기 17:14, 신명기 25:19) 그러나,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은 그 이유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하지만(21절), 실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24절)

사무엘상 16장

본장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두 번째 왕을 찾아 나서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왔고, 사무엘은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아주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은 ()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7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다 알 수 없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May 28

사무엘상 17장

본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대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고 선포하면서(45절), 이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6-47절에서 찾아 써 보세요.

- 1)
- 2)

사무엘상 18장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고(5절),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15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지만, 단 한 사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본장에서 사울은 왜 다윗을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나요? (12절, 15절, 28-29절)

May 29

사무엘상 19장

1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의 힘겨운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은 어디로 갔나요?(18절)

*라마는 기브아에서 가깝고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피하고 숨기에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한 이유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무엘상 20장

18장에 이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도피를 돕습니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4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고, 다윗이 위험 중에도 찾을만큼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May 30

사무엘상 21장

본장은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마을 놈에서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을 갑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지만, 이제는 그 땅으로 도망와 자신의 목숨을 위해 미친 척하는 다윗의 인생이 안쓰럽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 앞에서 미친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게는 부족함이 없도다"(8-9절)

사무엘상 22장

쉽 없는 쫓김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블레셋으로 도피하였던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1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으로 보이는 142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이시라 하였나이다"(4-5절)

*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환난 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May 31

사무엘상 23장

본장에서 다윗은 그릴라-광야의 요새-십 광야-마온 황무지로 계속하여 도피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사울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던 다윗을 요나단은 한 번에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16절)

*다윗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본장은 30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사울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예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24)